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00~110주년
표어
감사의 백년
소망의 백년
(데살로니가전서 5:18)

1963년9월20日 第3種郵便物許可 (毎月一日発行)

2016년 5월 1일 (일) 제 751 호

발행처 **복음신문사** (1부 100円)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 2-3-18
☎ 03-3202-5398
발행인 / 김성재 · 편집인 / 김병호
info@kccj.jp (복음신문)

어머니주일
설교

너를 잊지 않겠다

<이사야 49 : 15 ~ 16 >

박영자 목사 (잔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토요일카제일부흥교회)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는 어린 자식을 잘 관찰합니다. 안색이나 행동만 봐도 상태가 나쁜지 안좋은 일이 있는지 바로 압니다. 못된 장난이나 나쁜 일을 하고 잘 숨겼다 해도 어머니에게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머니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로 깊고 감사할 것 뿐입니다만 유감스럽게 자식을 사랑할 수 없는 어머니, 자식을 버리는 어머니도 있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움 받고 버려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곧잘 ‘하나님 아버지’ 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은 측면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욱 강하고 깊습니다. 젖먹이 옆에 있는 어머니와 같이,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지켜보시며, 애지중지하며 돌볼 뿐만 아니라, 참으로 <손바닥에 새겨> 주십니다. 한번 새기면 지워지지 않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그 존재를 그 자신의 손바닥 새기신 것입니다.

더우기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하십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예루살렘성 전체가 하나님의 것 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에게 비추어 보면, 나와 당신의 모든 존재, 역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항상 놓여져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신이 언제 어디에 태어나고 언제 어떻게 바람처럼 죽어 사라질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부터 알고 계시며, 인생의 모든 과정을 보고 계시며,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옆에 계십니다. 그 뿐 아니라, 그 뒤의 일도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현대는 고령화 사회, 의료화 사회입니다. 많은 사람이 장수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병원에서 죽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최후를 맞이 할런지, 어떠한 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러가지 선택을 해야 할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일본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어디서나 같습니다. 그러나 1970년경까지는 병이나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거나 화제로 삼거나 하는 것을 피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은 적극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큰 계기가 된 것이 『죽음의 순간』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지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가 쓴 이 책은 전세계에서 읽혀져 호스피스 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스박사가 있는 곳에 어느 날 신학생이 방문해 왔습니다. ‘인생의 위기’라고 하는 표제로 논문을 쓰게되고, 인생 최대의 위기는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연구방법을 모른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죽음에 가까운 말기환자에게 이야기를 듣는 것이 라고 생각하게 되고 박사에게 협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1965년입니다. 그때부터 박사와 학생은 200명 가까운 말기환자에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병원에서든 거절당했습니다. ‘말기환자에게 죽음에 대해서 묻다니 비상직적이다. 용태가 나빠지면 어떻게 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끈질기게 협력자를 모집 하던 중, 꼭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로스 박사와 신학생, 그리고 세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곧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목숨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러나 가족이나 친구 등은 두려워하여 화제를 피하고 임종이 다가오고 있는 사람에게 “안색이 좋네요”라든가 “건강해지면 무엇을 할까요”라든가 좋은 이야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피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환자가 가장 알고 싶은 것, ‘죽으면 어떻게 될것인가?’ ‘어디에 가는 것인가?’ 혹은 ‘나에게는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인가?’ 라는, 속일 수 없는 근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인생

우리들은 ‘아직 인생이 남아 있고 시간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식간에 세월은 지나가고 자신이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들의 목숨 문제, 사후 문제, 이것은 피할 수 없고 통과할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그 때 이러한 화제를 피하고 적당한 화제로 얼버무릴 것인가? 아니면 중요한 사람의 중요한 문제를 정확하게 직면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들의 평소의 삶의 태도에 달려 있지 않을까요?

우리들이 가령 하나님을 잊고 있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 애정은 어머니의 애정, 그 이상으로 깊습니다. 우리들에게 따뜻한 애정을 부어 주신 어머니, 비오는 날에도, 바람부는 날에도, 어떤 상황에도 지켜주신 어머니, 어머니를 보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또 숨을 거둔 뒤에도, 모든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관동지방여성회>

제64회 정지총회 개최

3월21일(월)오전 10시 30분부터 시나가와교회에서, 관동지방회 여성연합회 “제64회정지대회”가 9교회에서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개회예배는 부회장 박영원장로(시나가와교회)의 사회로, 강장식목사(시나가와교회)가 “생명싸개” (사무엘상25:28-31)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후, 박영자목사(토요나가제일부흥교회,전국여성회총무)의 사식으로 성찬식을 거행하였다.

제2부에서는 김혜진회장(가와사키교회)의 개식사로 시작되어, 이민례서기(니시아라이교회)가 회원호명한 뒤 개회선언을 하였다.계속해서 2015년도 각부보고와 함께 예산안 심의등이 승인되었다.

제 3부에서는 미니콘서트(배명주집사)로 멋진 시간을 보낸 뒤, 객은주목사(샘물교회)의 기도로 마쳤다. **(보고 : 객은주 목사)**

지방회서

일본기독교단 오사카교구와 합동예배

지난 2월 21일 오후 3시, 일본기독교단텐마교회에서 제일대한기독교회 간사이지방회와 일본기독교단오사카교구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다. 2014년에 이은 두 번째 연합예배다. 간사이지방회 선교협력부(부장 : 박성균 목사)와 오사카교구의 일한선교협력특별위원회(위원장: 나가사키 유미코씨)가 약 1년동안 준비해 온 이 시간은 1부 예배와 2부 교제의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제1부 예배는 오사카교구 의장 오가사와라 준 목사의 사회로 본총회의 부총회장인 김필순 목사가 갈라디아서5장13-15절 말씀을 통해서 “자유와 자녀”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양측 교회에서 참가한 약 130명의 신도가 사이토세이지 목사가 집례한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임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예배중에 드린 헌금은 오사카의 마이너리티 아동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에 기부하였다.

제2부 교제의 시간에는 오사카교구 이시바시교회의 김종규 목사의 사회로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만남을”,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등의 찬양을 모두가 함께 부르고 참가한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년센스 성경퀴즈대회 시간을 통해서 모두가 유쾌하게 웃으며 뜻 깊은 시간이 마무리 되었다.

이와같은 연합예배는 양교회가 체결한 선교협약이 문서상의 협약에 그치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신앙과 경험을 공유하며 일본사회 속의 기독교인으로 갖고 있는 공통의 과제를 확인하고 대처하는 바 선교협약의 실천이자 그 토대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보고 : 이원중 목사)**



지방회

신도공동연수회 개최

「소망으로 사는 교회」 주제로

3월21일(월)부터 22일(화)까지 1박2일동안 「소망으로 사는 교회—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 섬긴다」라는 주제로 이노우에카즈오 목사(일본기독교회 메이도우교회)를 강사로 모시고 あいち健康プラザ에서 신도공동연수회를 가졌다.

참가인원은 49명이었다. 정인선권사(중부지방교회 여성연합회장)의 사회로 개회예배를 드렸다. 김성제목사(중부지방회 교육부장)가 “땅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노우에카즈오목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 섬기며 소망으로 사는 교회라는 주제로 3회에 걸쳐 말씀을 전했다. 지금까지의 교회현장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송복희권사(중부지방교회 여성연합회부장)의 사회와, 권윤일목사(중부지방회부회장)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라는 말씀으로 폐회예배를 드렸다. **(보고 : 고성목사)**



지방회서

신도수양회 개최

「포기하지 않는 신앙」 주제로



2016년 2월10일(수)-11일(목)에 뉴산피아 히메지유메사키에서 서부지방회 신도수양회가 개최되었다. 본 수양회는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한국 ‘함께 걷는 교회’의 담임목사이며, 죠이코리아의 대표인 맹승주 목사를 강사로 모셨다.

첫날의 개회예배는 지방회장인 김승희목사(오카야마교회)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엡2 : 14-22) 라는 주제로 설교를 해주었다. 제1강의에서 맹승주목사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경험하는 세대](사무엘상17 : 37)를, 둘째날의 제2강의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사사기6 : 11-18) 로 청년들의 캠프 경험과 간증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에 의한 야성과 열정을 가지고 다음세대에 신앙을 전해야 하는 중요성을 배웠다.

둘째날의 새벽기도는 박두희목사(카와나시교회)가 [행복하기 위한 조건](룻2 : 1-4), 폐회예배는 이종재목사(니시노미야제자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봉사자](딤후4:6-10)란 주제로 설교해주었다. 새로운 교제와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1박2일이었다. **(보고 : 윤성철 장로)**

[사과와 정정] 3월에 발간한 『복음신문』의 호수 및 제자 옆의 발간일이 틀렸습니다. 바른 날자는 2016년 3월 1일 제750호입니다. 사과드리며 정정합니다.

5월의 초점 전국교회여성회연합회
나드향유옥합과 어머니의신앙

항상 전국교회여성연합회(이하, 전국여성회)을 위해, 기도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재일대한기독교회는 매년 어머니의 날을 「어머니 주일예배」로서 지켜 왔습니다. 교회의 여성, 어머니들의 역할은 큼니다.

전국여성회는, 1948년에 발족하였습니다. 당시, 재일여성들은 차별과 편견이 강한 사회에서 빈곤한 생활을 하여왔습니다만,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최선을 다한 봉사를 실천하여 왔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어머니들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차세대에 전승해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머니주일의 테마는 「평화·여성·신앙~역사를 새긴 우리들의 발걸음~」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간구하는 중에, 한국의 어머니들에게 배웠습니다.

1973년에 한 여성으로부터 시작한 기도에 의한 선교활동 「나드 향유 옥합」을, 몇 년간 심사 숙고한 후, 시행착오를 거치며 2013년 봄부터 개시하였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은 있어도 최전선으로 나아갈 수 없는 여성들이, 적은 현금을 모아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여성이 귀중한 옥합을 깨고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사건을 기억하며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의 대 선교명령을 짊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협력에 의해 2013년 6월부터 2015년 5월 말까지 1,026,015엔의 귀한 현금이 바쳐졌습니다. 그 중에서 40%를 국내외의 사회·선교단체에, 40%를 지방회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곤란한 교회의 지원으로, 20%를 여성회의 활동을 위해 사용되어 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은 겨자씨 한 톨이 이룩고 크게 성장해 가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부디 앞으로도 어머니 주일일을 기억해 「어머니 주일일 현금」, 또 「나드 향유 옥합」에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보고 : 박영자 총무)



1965년



2016년

【사회지원의현금처】

새월호피해자지원 · 세터민지원 · 네팔재해지원 · 헤노코기금 (후텐마 기지의 헤노코 이설을 반대하는 기금) · 헤리 기지반대 협의금 (상해헤리기지건설 반대 · 평화와 나고시정민주화를 구하는 협의회) · 동북헬프 (피해자구원, 정부와 타종교와 연대) · 엠마오 (일본기독교단 동북교단 센터) · 카리스타 저팬 · 프란저팬 (국제NGO 「네팔의 여자들의 조혼방지프로젝트」) · 시요우학원 (지능에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복지시설) · 서포트21 (일본에 정주하는 인도 시나 난민, 일본계 정주자 및 그 자제등의 자립을 지원) · 고향의 집 · 주메리나 (필리핀의 여성의 자립 지원) · RAIK (재일한국인문제연구소) · NCC (일본그리스도 교협회회) · 나니와교회 「사랑의 집」 · KCC · 서남KCC

公 告

利害關係者および信者各位

本法人は、下記の不動産を担保に、教会堂新築にかかる費用として、下記金融機関より融資を受けることを公告します。

- ①**土地** 神奈川県横浜市中区打越39番 264.46㎡、
39番1 175.20㎡、39番2 153.55㎡
- ②**建物** 鉄骨造陸屋根 4階建
- ③**金融機関** かながわ信用金庫 長者町支店
- ④**融資金額** 1億600万円

2016年 4月15日

在日大韓基督教横浜教会

代表役員 李明忠

公 告

利害關係者および信者各位

本法人は、下記の不動産を「在日大韓基督教会福岡中央教会」の伝道の用に供するため、当法人の名義とすることを公告します。

- ①**土地** 福岡県福岡市中央区長浜三丁目44番3 86.60㎡
福岡県福岡市中央区長浜一丁目66番2 145.03㎡
- ②**建物** 鉄骨造陸屋根3階建 1階140.15㎡、
2階156.47㎡、3階104.64㎡
- ③**資金** 土地代金 5,000万円、建築費 1,115万円
自己資金4,500万円、献金7,050万円
借入金 福岡幸銀行信用組合3,500万円
建築基金1,100万円

なお、上記借入金には、担保はない

2016年 4月15日

在日大韓基督教会

代表役員 金性済、書記 趙永哲

구마모토 대지진 피해자를 위해 기도하고 지원합시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40)



▲구마모토 교회는 지역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김성호목사는 교정목사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사람들의 피난처도 되어 있다

금번 큐슈 쿠마모토를 중심으로 일어난 큰 지진에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은 지진 다발국이라고 합니다. 십 수년 동안 큰 피해를 가져온 한신 아와지 대지진, 동일본대진재, 그리고 금번의 쿠마모토 대지진을 우리들은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재해에 대하여 예측하고 피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느낄 뿐입니다.

저는 한신 아와지 대지진 때에는 오사카에서 건축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지진 직후에 코베 아시아를 중심으로, 근무했던 설계하였던 건물을 중심으로 피해 조사를 하러 다녔습니다. 대부분이라 해도 괜찮을 정도로 건물들이 파괴되고 기우러졌으며 또한 여기저기에서 화재가 일어나 불바다가 된 광경이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 마음이 아픕니다. 설계를 담당했던 건물에는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을 확인하는 생각이 복잡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일어나기 수 개월 전부터 설계사무실에 계속 일할 것인가, 아니면 신학교에 입학하여 헌신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축 설계에 종사하면서 사람의 귀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설계를 하는 자가 그 역할을 십분 발휘한다 할 수 없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고, 자연의 힘 앞에 너무나 미력하다는 것을 통감하였습니다. 저는 건축설계라는 일을 평생 생업으로 하는 것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 피해지역의 신학교로 부터 입학 허가를 받았습다. 파괴된 건물을 보면서 신학교 생활을 시작하기에는 건축

업에 종사하였던 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을 알게된 것은 물론 자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입니다. 현재 피해지역에는 초기 지원에 혼란이 있어 지원 물자가 도착하기 어렵다 합니다. 이제 중 장기적으로 어떻게 피해지역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지원 활동을 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일대한기독교회 전국교회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것은 물론, 물심양면으로 피해 지역 분들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서 협력해 나갑시다.

●정수환 (사회위원장)



▲구마모토 시내의 상황. 많은 오래된 목조건물이 파괴되어 있다

구마모토지진 구원모금

○송금처 : 郵便振替口座 00130-9-159228
口座名称 在日大韓基督教会

在日コリアン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目指して、在日本韓国YMCAは皆様と共に歩みます。



東京◆ホテル：東京で一番安く便利な宿泊研修施設。フロントは日・韓・英語に対応、24時間営業。

- ◆10名様～200名様様の会議及び宿泊研修(50名)も可能。
- ◆スペースYホール：200席の多目的ホール。セミナー・コンサートなどに対応。
- ◆韓国文化教室(チャンゴ・カヤグム・舞踊) ◆韓国語講座 ◆各種こどもクラス
- ◆YMCA東京日本語学校(3ヶ月～2年、短期研修)

関西◆にほんご教室(新規開講・募集中) ◆韓国民俗芸術科(舞踊・チャンゴ)

税込	平日	休休前日
シングル	¥6,500	¥6,000
ダブル	¥10,500	¥9,700
トリプル	¥13,500	¥12,500
※朝食・コーヒー¥200(宿泊者価格)		

在日本韓国YMCA <http://www.ymcajapan.org/ayc/jp/> *会員及び教職者割引有。詳しくは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東京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樂町2-5-5 ☎03-3233-0611
関西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537-0025 大阪市東成区中道3-14-15 ☎06-6981-0782